

KISA & KISA

등산동호회 '산사랑 KISA사랑'

열심히 일한 우리, 떠난다. 산으로

등산을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시 내려 올 것'이라는 이유로 등산 매니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산행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들 또한 이해 못 할 사람들이기도 하다. KISA 등산동호회 '산사랑 KISA사랑'에 몸담고 있는 회원들은 이미 등산의 '맛'을 알아버린 사람들이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산사랑 KISA사랑'은 산행을 통해 직원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정을 나누는 등산동호회. 일부 사람들에게 등산은 휴식이 아닌 또 다른 '노동'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산행을 즐겨본 사람이라면 산행이야말로 진정한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약 1년전 시작된 KISA 등산동호회는 21명의 회원이 모여 지금까지 서울 근교의 산을 중심으로 7차례 산행을 해왔으며, 특히 단풍이 멋들어질 올해 가을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설악산 완주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의 발길을 산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일까. 동호회 한 회원은 "정상에서 느끼는 상쾌함은 물론, 산행을 끝내고 느끼는 만족감이 등산의 고통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물론, 정상에서 먹는 '도시락'과 '막걸리 한잔'도 이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등산의 매력이다. "첫 산행이었던 청계산을 오를 때였어요. 회사에서는 팀장님이나 동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산을 함께 오르며 오순도순 나눴던 대화들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라는 또 다른 회원은 동료들의 따뜻한 배려, 정상에서의 느끼는 자신감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큰 힘이라고 한다. **S**

